

## 6·25 전사 영웅, 71년 만에 아들과 재회

육군인사사 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고 김경용 이등중사 현충원 안장 확인 전역서 전사로 기록 오류도 바로잡아 화랑무공훈장 전도 수여·추모식 거행

“이렇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처럼 가까이 도움을 준 조사단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고 김경용 이등중사 아들 김동수 씨)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확인하지 못했던 호국영웅과 아들이 71년 만에 눈물겨운 재회를 했다. 국가는 아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며 뒤늦게 찾은 호국영웅에 대한 예를 닮았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배 전우를 찾아낸 육군의 노력이 있었다.

육군인사사령부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조사단)은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경용 이등중사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관련 기사 3면

김 이등중사는 1950년 9월 17일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입대해 국군8사단 21연대 소속으로 전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각종 전투에서 활약하던 그는 나이 많은 병사를 전역시키는 ‘연로제(年老制)’에 따라 1952년 6월 1일 자로 전역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 이등중사는 전역을 이틀 앞둔 1952년 5월 29일 강원도 인제지구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 그는 6월 2일 제36육군병원으로, 같은 달 14일엔 제27육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고 김경용 이등중사의 아들 김동수(가운데) 씨가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무공훈장 전도 수여식에서 신기진(대령·맨 왼쪽) 조사단장으로부터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서를 전수받고 있다. 김병문 기자

해 1월 23일 숨을 거뒀다. 유해는 전상(戰傷) 처리된 채 27육군병원 소속으로 서울 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나 긴박한 전장 상황에서 그의 죽음은 허공에 떠 버렸다. 사망 기록이 원 소속 부대인 8사단 21연대에 전해지지 않은 것. 결국 그는 ‘전사’가 아닌 ‘전역’으로 기록됐다.

김 이등중사의 가족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전역한 그가 돌아오지 않자 지금까지 어디선가 전투를 하다 실종됐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30년 전 서울로 이사 온 아들 김동수(78) 씨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행정기관에서 받은 자료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적증명서를 비교한 결과

성명과 주소 기록이 일치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생년월일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혼란은 더 가중됐다.

사실상 포기 상태였던 유가족을 대신해 김 이등중사의 행적을 찾아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조사단. 조사단은 전쟁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조치를 기록한 ‘매화장보고서’에서 결정적 실마리를 잡았다.

“김 이등중사님의 매화장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27육군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기록과 사망일자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유해가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죠. 좀 더 일찍 알아내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김 이등중사와 유가족들의 만남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정찬호(원사) 조사관의 말이다.

유가족들이 현충원에 안장된 김 이등중사의 유해를 찾지 못했던 것은 행정상의 오류 때문이었다. 전역과 전사 시기가 겹치면서 하나의 기록으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조사단이 근거로 삼은 매화장보고서에는 이 모든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단서를 차근차근 정리한 조사단은 지난 20일 서울현충원을 찾아갔다. 추석이 오기 전에 김 이등중사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묘역을 확인하는 등 ‘속전속결’로 조사에 나섰다.

확인 결과 71년 전 작성된 매화장보고서에 ‘묘역번호 335’에 김 이등중사가 안장돼 있었다. 비석에는 기록과 일치하는 이름과 전사일자가 각인돼 있었다. 박상원 기자

### 올리브영 1위 마스크팩\* 듀이트리 픽앤퀵 마스크

#판매1위 #매끈촉촉 #대용량갓성비

\*픽앤퀵 화장발 마스크 올리브영 온라인몰 2020.12.21 기준



듀이트리 픽앤퀵 화장발 마스크



DEWYTREE

듀이트리 모델 더보이즈 큐